

15. 한국의 종교



들어가기

아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 사람들은 왜 돌을 쌓았을까?

자신의 출신국가에서는 소원을 빌 때 어떻게 하는지 적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다양한 현대 종교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Section 1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주변에 많은 신령이 있고 이들 신령이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정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무당을 찾아가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곤 했다. 또한 미래가 궁금할 때에도 무당을 찾아가 점을 쳤다. 이는 무당이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신령에게 자신의 행운을 비는 경우도 많았다. 요즘에도 중요한 일이나 결혼을 앞두고 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무나 돌에도 신성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다. 대표적으로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인 당산나무가 있다. 요즘도 시골에서는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고 마을에 걱정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빌면서 당산 나무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장승과 솟대도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켜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장승은 무섭게 생긴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으로, 사람들은 장승이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고 믿었다. 한편, 솟대는 긴 나무 막대기 위에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올려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솟대를 세워 농사가 잘 되고 행운이 찾아오기를 빌었다. 또한,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이를 기념하여 솟대를 세우기도 했다.



▶ 당산나무



▶ 장승



▶ 솟대



알아두기

집 안에도 여러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집 안에도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성주신은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신으로 가정을 편안하게 지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 준다고 믿었다. 삼신은 안방에 있는 신으로 아기를 태어나게 해주고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다.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아이가 일찍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삼신에게 감사하고 아이가 잘 크기를 비는 마음을 담아 삼신상을 안방에 차려 두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엌에는 조왕신, 화장실에는 축신,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 등이 있다고 믿었다.

▶ 길흉화복

좋은 일과 나쁜 일

굿

무당이 노래와 춤을 통해 신령과 교류한다고 믿는 의식

무속(巫俗) 신앙

영어로는 샤머니즘(Shamanism)이라고 하며, 무속인(shaman)을 매개로 하여 신과 교류하는 원시적 신앙 형태



무속인에게 점을 보는 무속신앙은 현대에도 일부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는 점을 봐주는 집(점집)이 있다.



삼신상 : 삼신상에는 흰 밥과 미역국, 그리고 정화수를 올린다. 지역에 따라 나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다 차린 후에는 절을 하면서 아이의 건강을 빌었다.

Section 2

오늘날 한국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

외래 종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



명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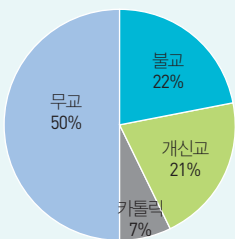


정동교회



이슬람사원(서울 이태원동)

한국인의 종교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한국인의 약 50%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고사상

오늘날 한국인들은 불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로서 한국인의 절반 정도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불교는 4세기 무렵 한국에 전파된 종교로서 외래 종교 중 가장 오래 되었고 그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절과 그 안에 있는 불상, 탑 등은 한국의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나 체험 등을 위해 절을 방문한다.



▶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유교도 삼국시대에 처음 들어온 이후 대체로 고려 말 무렵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이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 사람들은 웃어른에 대한 예의, 가족의 결속 등과 같은 유교적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른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치관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의 대표적인 의식의 하나이다.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뉜다. 가톨릭은 17세기에 서양의 학문과 함께 들어왔다. 신분 간의 평등을 주장하거나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교적 전통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가톨릭은 조선 시대에 한동안 금지되거나 억압을 받기도 했다.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개신교는 종교 활동뿐 아니라 병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가톨릭의 종교 의식은 성당에서, 개신교의 종교 의식은 교회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한편, 원불교와 천도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종교로서 각각 일정한 수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슬람 사원 등 이슬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더 배우기

왜 고사 때 돼지머리를 올릴까?

한국에서는 가게를 새로 여는 등 사업을 시작하거나, 드라마·영화 등을 새로 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사란 나쁜 운은 없어지고 행운이 오도록 하기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게 비는 제사이다. 고사를 위해 차린 상에는 일반적으로 돼지머리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돼지가 신에게 소원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 것처럼 많은 돈을 벌라는 의미도 있다. 고사를 지낼 때 절을 하고 돼지 입에 돈을 넣는 것도 큰돈을 벌어서 성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리하기

1.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 무속신앙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신앙임
- 전통신앙에서 당산나무, 장승, 솟대는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믿었음

2. 오늘날 한국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

-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음
- 불교는 사찰 등 많은 문화재를 남겼고, 유교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음
- 조선 후기에 전파된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분됨
- 원불교와 천도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종교임
- 오늘날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문제풀기

1. 다음을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 ① 마을을 지켜주는 신 •
- ② 집 안에 있는 신 •

- ㉠ 장승
- ㉡ 삼신
- ㉢ 당산나무
- ㉣ 성주

2. 다음의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국에 전파된 외래 종교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남긴 종교는 ()이다.

3. 다음 중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유교이다.
- ② 불교는 고려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성당에서 종교의식을 한다.
- ③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현재 다양한 종교가 있다.
- ④ 가톨릭은 삼국시대에 들어온 종교로 현재 신도수가 가장 적다.

